



문중·계파의 한계

근래 우리 불교는 여러모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속에 안정을 되찾고 있어 불자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은 때가 많다.

승가란 곧 화합과 평화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합을 떠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에 일선에서 포교에 전념하는 불자들은 화합에 장애요인이, 그것도 종단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때 딱 툭 할 말 있을 경우가 많다. 그것도 불자는 물론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활극 같은 무대가 연출될 때 억압이 무너지는 것을 수 없이 겪어 왔다. 이 때문에 불자들이기를 포기하는 숫자가 가을날 무서리엔 낙엽 떨어지듯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종단 불구의 중심에는 문중과 계파의 대립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라는 한 집안에서 형제끼리 무리를 지어 다투어 온 셈이다. 우리 불교의 문중이란 큰 대립의 핵심...세력화 풍토 고착 이해관계 초월한 화합장치 대안



적어도 상당수 스님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1초의 의식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때 우리 불교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좋은 진리의 불교라 해도 이를 깨우치고 선도해 나갈 스님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지역의 한 사람에서는 문중과 계파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불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비아냥을 듣고 있고, 일부 사찰들도 방자이나 주지 선출 문제 등에 있어 세력싸움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중과 계파 간에 암투를 벌이며 세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는 또 어떨까. 계파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면서 불교 발전을 위한 생산적 활동보다는 '나'와 '내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전투'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지고한 가르침과 정규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칠 때가 많다. 마치 세속의 정치무대 같이 줄을 잘 서야 한자리하고 풍요를 누리며 노후대책이 된다는 듯한 행동이 밖으로 표출될 때면, 진정한 출가정신이란 무엇인가, 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싶은 지경이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김연호(우리는선우) 재천 지회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차 공사 착공에 즈음해 구 총무원 청사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옛 총무원청사 철거 영역의 세월 '역사속으로'

조계종 구 총무원 청사(불교중앙회관)가 영역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철거되기 시작했다. 준공 24년 만에 조계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은 4월 21일 옛 덕왕전 터 앞마당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차 공사 착공에 즈음한 종단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이 행사가 단지 건물 하나를 허물고 새로 짓는 정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띠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영역의 순간들을 뒤로 하고, 화합과 발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만나세요" 포교원 홍보영상 제작

"월경~! 한국불교 세계로 들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와 한국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홍보영상을 '한국불교로의 초대(Invitation to Korean Buddhism)'를 제작, 주한 외국대사관과 해외 한국대사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필두로 배포작업에 나섰다.

한국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홍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불교중앙협의회 등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이번 영상물은 순선 송광사, 합천 해인사, 경주 불국사 등 전국 30여 사찰의 자연환경과 스님들의 수행생활, 성보문화재,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세계 질'이란 네 가지 테마로 담았다. 또한 그 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선방과 스님들의 참선, 강원공부, 발우공양 등 사찰 일상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 불교를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포교원의 김한일 주임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때에는 거리상영회 등의 방식으로 내·외국인들 모두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물은 15분가량의 분량으로 현재 지원되는 한국어와 영어 외에 울해 안으로 일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일산병원영안실 학교운영 동국대 교수회 입장 발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영안실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법인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수회(회장 염준근)는 4월 23일 "일산병원 영안실은 총장이 책임을 지고 영안실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골자로 한 '일산병원 영안실 운영권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영안실은 교육용자신으로서 수익용 자산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병원 영안실 운영은 대학병원의 저자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총장이 책임 지고 병원과 함께 영안실의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재단과 학교 발전을 위한 순리"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17대 국회 정각회 구성될까? 조선의원들 신심과시 "기대하세요"

'17대 국회에는 불자국회의원 신행모임인 정각회가 구성될까?'

4.15 총선이 끝나면서 국회정각회의 결성 유무에 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각회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각회장의 선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결성조차 되지 않았다. 때문에 불교계가 이번 17대 불자의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본지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선거대책본부 등을 파악한 불자의원은 총 28명(본지 470호 기사 참조). 지난 15대 83명, 16대 43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민주당 불자의원 모임 연등회와 한나라당 불

자회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조선 불자의원이 20명이나 돼 향후 국회정각회 결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당선자경

16대 불발... '이번엔 결성' 주문 '개원직후 출범'에 각 당 긍정적

기 남양주 갑은 "조선의원이지만 국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불교계 권익을 옹호하고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앞으로 17대 국회에 정각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불자의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대피는 "불자 당선자 모두가 국회정각회 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회정각회장은 어느 당에 맡긴 상관없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정각회가 반드시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역구 당선자들도 정각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계진 당선자(강원 원주)는 "정각회가 초당적, 초정치적인 신행모임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에서는 정각회장 선출을 놓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며 "국회개원직후 가능한 빨리 정각회가 출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신행고취·정보네트워크 구축 박차" 조계종 통합신도회 발전 방안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이하 통합신도회)가 재가불자의 올바른 신행 고취와 불자들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5월 7일 '신도회 통합대회'를 통해 공식출범하게 될 통합신도회는 신도회의 정체성 확보와 조직 확대 및 강화, 종합법 개정 등을 통한 신도회의 활성화, 통합신도

회의 지도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월 21일 밝혔다.

통합신도회는 우선 5계교 본제 작 및 지역별 결사 입재법회, 실천계목 선택 등 5계정신에 입각한 생활불자윤리 운동과 지역불교 공동체 활성화 작업 등을 통해 신도회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신도회의 근간은 재가불자들의 활발한 신행활동이며, 가정과 회사 등 각각의 생활공간 안에서의 적합한 신행프로그램과 실천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불자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불자폰 사업을 통해 조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 컨텐츠에 대한 불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추후 신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취지다. 특히 정보네트워크 사업은 신도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사찰과 전종단을 잇는 총괄적인 불교네트워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구 회장(현 전국신도회)과 함께 통합신도회의 공동회장을 맡을 백창기 회장(현 중앙신도회)은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통합은 단순히 양 신도회의 결합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해야 될 것"이라며 "정보화, 지방분권에 걸 맞는 신도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부처님 오신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드리는 299일 지혜의 등불 밝히기 봉행
우리절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2005년 3월 21일까지 299일 동안 관음전에 자비를 들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위해 연등을 달고 불을 밝힙니다.
정당·종교·지역·정책·사상 등을 뛰어넘어 제17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연으로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칭송받는 그런 입법위원들이 되십시오.
■참고자료
생전예수제를 봉행할 때 명부세계 열반의 심대왕을 비롯하여 사자들과 권속 등 모두 299분의 신위를 모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 뒤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세 번의 대법회를 열어 모두 299명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이 299분의 신위와 299명의 제도중생의 수는 미묘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와 맞아떨어집니다.